

『本草精華』 草部 鄉藥名에 관한 研究

이덕호 · 엄동명* · 김홍균

한국전통의학사연구소, *한국한의학회지

Abstract

Study on local medicinal herbs in Bonchojeonghwa Chapter of Grass

Lee Deokho, Eom Dongmyung*, Kim Hongkyoon
Institute of Traditional Medical History in Korea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s a result of study on the names of local medicinal herbs which described in Chobu (Chapter of Grass) of Korean medical book Bonchojeonghwa, we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Compared with the existing domestic medical books' local medicinal herb names, those of Donguibogam had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Bonchojeonghwa. Out of local medicinal herb names described in Chobu of Bonchojeonghwa, a third is only shown in Bonchojeonghwa, and another third is same as those in Donguibogam.

2) The notation of local medicinal herb names in Bonchojeonghwa is not so consistent as Donguibogam. In Bonchojeonghwa, we can see many examples of inconsistent notations over the same thing. Moreover, there are some examples, which are suspected to be an expression of dialect.

3) In spite of close similarity between the names of local medicinal herbs in Bonchojeonghwa and Donguibogam, the author of Bonchojeonghwa doesn't seem to directly refer to or quote Donguibogam, because it doesn't make sense that the author of Bonchojeonghwa intentionally referred to regular, consistent Donguibogam in irregular, inconsistent way.

4) In spite of very low possibility of direct reference or quotation among Bonchojeonghwa, Donguibogam and Bangyakhappyon, there are many examples of common format in its notation way on local medicinal herbs, which cannot be explained only as coincidence. And it tells us that there must be another publication which had been referred to or quoted by the said three medical books.

5) From the fact that there are a lot of examples of local medicinal herb names which doesn't show palatalization, or labialization, the names of local medicinal herbs described in Bonchojeonghwa must be the expression around 17th century.

Key words : Bonchojeonghwa, Donguibogam, local medicinal herbs, Korean medicine

1. 序論

『本草精華』는 한글 鄉藥名이 기재된 몇 안 되는 本草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는 간행 시기와 저자에 대하여서도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本草精華』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대부분 明代 李時珍의 『本草綱目』에서 가지고 왔으며, 일부 내용은 清代 繆希雍의 『神農本草經疏』¹⁾에서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인용서적을 통해 『本草精華』가 언제 간행되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本草綱目』이 1590년에 간행되었고 『神農本草經疏』는 1625년에 간행되었다. 또한 『神農本草經疏』는 『本草精華』 引用書目에 등장하는 문헌 중 가장 후대에 간행된 서적이므로 『本草精華』의 저작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神農本草經疏』가 간행된 1625년 以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서로 꼽히는 『東醫寶鑑』이 1613년에 간행되었으므로, 『本草精華』는 당연히 『東醫寶鑑』보다 늦게 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東醫寶鑑』이 시대적으로 앞서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本草精華』에는 『東醫寶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東醫寶鑑』 이후에 간행된 많은 의서들이 『東醫寶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本草精華』의 저자는 저술 당시 『東醫寶鑑』을 접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東醫寶鑑』의 내용을 신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왕명에 의해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東醫寶鑑』이 편찬되었으며, 『東醫寶鑑』이 간행된 후 국내 의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本草精華』의 저자가 『東醫寶鑑』의 인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本草精華』의 저자가 의료 계

통의 관직에 있었던 인물이라면 『東醫寶鑑』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 내용을 배제하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東醫寶鑑』이 널리 배포된 이후라 하더라도 『本草精華』의 저자가 미처 『東醫寶鑑』을 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本草精華』가 주로 『本草綱目』을 인용하여 요약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本草精華』의 저자는 『東醫寶鑑』보다 먼저 출간되었고 당시 상황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國外書인 『本草綱目』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일 것인데, 외국의 의서까지 열람하고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東醫寶鑑』을 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本草精華』의 저자는 『東醫寶鑑』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本草精華』를 지었다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本草精華』의 간행 시기와 저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서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문이나 발문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되는 기록조차 드물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本草精華』에 수록된 鄉藥名을 중심으로 하고 역대 本草書에 기록된 향약명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 향약명의 통시적 변화에 있어서 『本草精華』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本草精華』의 간행시기나 저자에 관한 연구, 본문의 내용 연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本草精華』 引用書目에는 『繆希雍經疏』로 기재되어 있는데 『神農本草經疏』를 말한다. 『本草經疏』라고도 한다.

2. 本論

2.1. 研究方法

- 1) 『本草精華』 草部に 수록된 약제의 향약명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草部에는 가장 많은 약제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역대 本草書의 향약명 중 『本草精華』의 향약명과 동일한 경우를 찾아서 정리하고, 이것을 『本草精華』 향약명의 통시적 위치를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3) 『本草精華』를 중심으로 하고 역대 문헌에 기재된 鄉藥名을 비교하는데, 다음과 같이 내용을 서술하였다.
 - ① 『本草精華』에 나온 鄉藥名은 제목으로 달아 비교한다.
 - ② 鄉藥名을 수록한 서적들은 간행시기별로 비교한다.
 - ③ 이두로 표현된 鄉藥名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한글 解讀을 제시하였다.
- 4)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本草精華』 鄉藥名의 기록 시기를 假定²⁾하였다.
 - ① 『本草精華』의 향약명과 동일한 표기가 기재된 문헌을 찾는다. 이 문헌의 저작연대와 비슷한 시기에 『本草精華』의 향약명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本草精華』의 향약명과 동일한 표기가 기재된 문헌이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표기가 기재된 문헌을 통해 시대를 추정한다. 이 경우, 다음 ③~⑦과 같은 기준에 의해 각 표기의 先後를 결정한다.
- ③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후대의 표기라고 추정한다. 비원순모음화의 경우는 기존에 연구된 사실들을 참조하여 시대 구분의 혼선을 피한다. (예: ‘불휘’와 ‘불회’)
- ④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후대의 표기라고 추정한다.
- ⑤ 모음조화가 파괴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후대의 표기라고 추정한다.
- ⑥ ‘ㅃ’계 단어가 ‘ㅍ’계 단어보다 古形인 것으로 추정한다.
- ⑦ 위와 같은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는 기존의 연구 및 論者의 추리를 통하여 시대를 추정한다.

5)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간략히 고찰한다.³⁾

2.2. 『本草精華』 草部の 鄉藥名 研究

2.2.1. 山草類

1) 黃耆 : 든너슴불회

- ① 甘板麻 (『鄉藥救急方』 1251, 『鄉藥集成方』

2) ‘假定’은 論者의 표현이다. 국내 本草書의 각종 板本이 간행된 시기적 차이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일 本草書 內의 향약명 표기의 변천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初版本이 아닌 자료의 향약명과의 비교만으로는 『本草精華』의 鄉藥名이 쓰여진 시기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잠정적인 추론만이라도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假定’이라 표현하였다.

3) 특히 방언으로 의심되는 향약명의 경우 해당 향약명이 사용된 지역적 특색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저자의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1433)

- ② 단너숯불휘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③ 단너삼불휘 (『東醫寶鑑』 1613)
- ④ 단너습불휘 (『濟衆新編』 1799)
- ⑤ 단너습불휘 (『方藥合編』 1884)

甘板麻는 ‘단닐삼’으로 解讀된다.⁴⁾ 『本草精華』草部에서는 ‘불회’라는 형태의 단어를 총 세 번 사용했다.⁵⁾ 뿌리를 뜻하는 이 단어는 「용비어천가」(1447)에는 ‘불휘’로 기재되었으며, 「소학언해」(1586)에는 ‘썰회’로 기재되었다. 15세기 초부터 ‘불휘’와 ‘불회’의 두 표기가 혼용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불휘’ 쪽이 더 우세하게 되었다. ‘불회’는 18세기 초반 문헌인 『山林經濟』에서 ‘삼두불회’에 사용된 예가 발견된다. 비교적 초기부터 ‘불휘’, ‘불회’가 공존했으므로 이 단어만으로는 본 향약명이 사용된 시기의 先後를 판가름할 수 없다.

2) 沙蔘 : 더덕

- ① 加德 (『鄉藥集成方』 1433)
- ② 더덕 (『訓蒙字會』 1527)
- ③ 더덕 (『東醫寶鑑』 1613)

加德은 ‘더덕’으로 解讀된다.⁶⁾ 『訓蒙字會』, 『東醫寶鑑』, 『本草精華』 모두 ‘더덕’으로 기재했다.

3) 吉梗 : 도랏

- ① 道羅次, 刀스次 (『鄉藥救急方』 1251)
- ② 都乙羅叱 (『鄉藥採取月令』 1431)
- ③ 도랏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④ 도랏 (『訓蒙字會』 1527)

- ⑤ 道乙阿叱, 들앗 (『村家救急方』 1571)

- ⑥ 도랏 (『東醫寶鑑』 1613)

- ⑦ 들랏 (『經驗方』 1630)

- ⑧ 도라지 (『山林經濟』 1718)

道羅次와 刀스次는 ‘도랏’으로, 都乙羅叱은 ‘들랏’으로 解讀된다.⁷⁾ ‘도랏’의 형태가 초기부터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救急簡易方診解』, 『訓蒙字會』, 『東醫寶鑑』, 『本草精華』에서 ‘도랏’으로 기재되었다.

4) 黃精 : 독덧불휘

- ① 竹大根 (『鄉藥集成方』 1433)
- ② 독덧불휘 (『東醫寶鑑』 1613)
- ③ 죽덧불휘 (『濟衆新編』 1799)

竹大根은 ‘독대불휘’로 解讀된다.⁸⁾ ‘독덧’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濟衆新編』보다 이전 시대의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독덧’이 ‘독대’으로 변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독대’가 ‘독덧’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東醫寶鑑』보다는 『本草精華』의 표기가 더 古形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래아(·) 표기는 20세기 초반까지 혼란상을 보이므로 이것만으로 시대의 先後를 정하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5) 白朮 : 삼두불휘

- ① 沙邑菜 (『鄉藥救急方』 1251)
- ② 沙邑條根 (『村家救急方』 1538)
- ③ 삼두불휘 (『救急簡易方診解』 1489, 『東醫寶鑑』 1613)
- ④ 삼두불회 (『山林經濟』 1718)

4) 손병태, 『鄉藥 藥材名의 國語學的 研究』, 88쪽.

5) 『本草精華』에는 ‘단너습불회(黃耆)’, ‘구리덧불회(白芷)’, ‘자리공불회(商陸)’ 세 가지 用例가 있다.

6) 손병태, 위의 논문, 50쪽

7) 손병태, 위의 논문, 32쪽

8) 손병태, 위의 논문, 89쪽

- ⑤ 삼돛불휘 (『濟衆新編』 1799)
- ⑥ 삼주 (『物名考』 1820)
- ⑦ 삼주 (『朝鮮植物名彙』 1922)

沙邑菜는 '삼늬물'로, 沙邑條根은 '삼도불휘'로 解讀되며, '삼도(삼두) > 삼두 > 삼주'의 변천을 보인다.⁹⁾ '삼돛불휘'의 형태가 『救急簡易方諺解』, 『東醫寶鑑』, 『濟衆新編』 등에서 발견된다. 『本草精華』의 표기는 이들 세 문헌과 『山林經濟』 표기의 중간형인 것처럼 보인다. '삼두'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략 1700년 이전의 표기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6) 遠志 : 아기플불휘

- ① 非師豆刀草, 阿只草 (『鄉藥救急方』 1251)
- ② 아기촛불휘 (『救急簡易方諺解』 1489)
- ③ 阿只草, 아기플 (『村家救急方』 1538)
- ④ 아기플불휘 (『東醫寶鑑』 1613)

阿只草는 '아기플'로 解讀된다.¹⁰⁾ 『本草精華』와 『東醫寶鑑』의 표기가 동일하다. '아기플'에서 원순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략 17세기 초반 이전의 표기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7) 白及 : 더웬풀

- ① 竹栗膠 (『鄉藥採取月令』 1431)
- ② 대웬풀불휘 (『救急簡易方諺解』 1489)
- ③ 대웬풀 (『東醫寶鑑』 1613)

竹栗膠는 '대웬풀'로 解讀된다.¹¹⁾ 『東醫寶鑑』에는 '대웬풀'로, 『本草精華』에는 '더웬풀'로 기

재되어 있다. '대웬풀'과 '더웬풀'은 先後를 가리기가 어렵다.

8) 黃芩 : 속서근플

- ① 所邑朽斤草, 精朽草 (『鄉藥救急方』 1251)
- ② 裏朽斤中, 裏腐中 (『鄉藥採取月令』 1431)
- ③ 솨서근플불휘 (『救急簡易方諺解』 1489)
- ④ 裏朽草, 속서근플 (『村家救急方』 1571)
- ⑤ 속서근플 (『東醫寶鑑』 1613, 『方藥合編』 1884)

所邑朽斤草, 精朽草, 裏朽斤中, 裏腐中는 모두 '솨서근플'로 解讀된다.¹²⁾ '속서근플'에서는 단모음화와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村家救急方』의 '속서근플'보다 이전의 표기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9) 柴胡 : 뫼미나리

- ① 山叱水乃立, 猪矣水乃立, 椒菜, 青玉葵 (『鄉藥救急方』 1251)
- ② 山芹 (『村家救急方』 1571)
- ③ 식훗불휘 (『救急簡易方諺解』 1489)
- ④ 뫼미나리 (『東醫寶鑑』 1613)
- ⑤ 촘늬물불휘 (『山林經濟』 1718)
- ⑥ 뫼미나리 (『方藥合編』 1884)

山叱水乃立은 '뫼물나립'으로, 猪矣水乃立은 '돌의물나립'으로 解讀되며, '뫼물나립'은 '뫼물나립 > 뫼므나리 > 뫼미나리(뫼미나리) > 뫼미나리'의 변화를 보인다.¹³⁾ 『本草精華』와 『方藥合編』의 표기가 동일하다.

9) 손병태, 위의 논문, 79쪽
 10) 손병태, 위의 논문, 67쪽
 11) 손병태, 위의 논문, 45쪽
 12) 손병태, 위의 논문, 88쪽
 13) 손병태, 위의 논문, 60쪽

10) 前胡 : 사향칫불휘

- ① 蛇香菜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 ② 射香菜, 사향치 (『村家救急方』 1571)
- ③ 사향칫불휘 (『東醫寶鑑』 1613)

蛇香菜는 ‘사향치’로 解讀되며, ‘사향치’ 사향치> 사향채> (생채)> 생치’의 변화를 보인다.¹⁴⁾ 『東醫寶鑑』의 표기는 복모음과 ㅅ반침이 사용된 점으로 보아 『本草精華』의 표기보다 古形인 것으로 추정된다.

11) 獨活 : 찻들흙

- ① 虎驚草 (『鄉藥救急方』 1251, 『鄉藥採取月令』 1431)
- ② 地頭乙戶邑 (『鄉藥集成方』 1433)
- ③ 독활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④ 찻들흙 (『東醫寶鑑』 1613, 『濟衆新編』 1799)
- ⑤ 뒛들흙 (『方藥合編』 1884)

虎驚草는 ‘범두리풀’로, 地頭乙戶邑은 ‘짜들흙’으로 解讀된다.¹⁵⁾ ‘찻들흙’은 『東醫寶鑑』의 ‘찻들흙’과 가장 유사하나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12) 羌活 : 강호리

- ① 강호리 (『東醫寶鑑』 1613, 『方藥合編』 1884)
- 羌活은 『鄉藥救急方』, 『鄉藥採取月令』 등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鄉藥集成方』에는 獨活의 異名으로만 기재되었다. ‘강호리’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강호리’보다 古形일 가능성이 높다.

13) 升麻 : 띄덜가릿불휘

- ① 雉骨木, 雉鳥老草 (『鄉藥救急方』 1251)
- ② 知骨木, 雉鳥老草 (『鄉藥採取月令』 1431)
- ③ 升麻 (『鄉藥集成方』 1433)
- ④ 승맛불휘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⑤ 띄당가리 (『分門瘟疫易解方』 1542)
- ⑥ 띄덜가릿불휘 (『東醫寶鑑』 1613)
- ⑦ 띄절가릿불휘 (『山林經濟』 1718)
- ⑧ 띄덜가릿불휘 (『方藥合編』 1884)

雉骨木은 ‘띄골나모’로, 雉鳥老草는 ‘띄도료골’로, 知骨木은 ‘지골나모’로 각각 解讀된다.¹⁶⁾ ‘띄덜가릿불휘’의 경우 『東醫寶鑑』에서 동일한 표기가 기재되었다. 아직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山林經濟』의 표기보다는 이전 시대의 표기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14) 山慈菰 : 가치무릇

- ① 馬無乙申 (『鄉藥集成方』 1433)
- ② 뭇물긋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③ 가치무릇 (『東醫寶鑑』 1613)
- ④ 뭇무릇 (『物名考』 1820)

馬無乙申은 ‘뭇물긋’으로 解讀되며, ‘뭇물긋’ 뭇물긋> (뭇무릇)> 뭇무릇> 말무릇’의 변천을 보인다.¹⁷⁾ 『本草精華』와 『東醫寶鑑』의 표기가 동일하다.

15) 草龍膽 : 과남풀

- ① 觀音草 (『鄉藥集成方』 1433, 『村家救急方』 1571)
- ② 과남풀 (『東醫寶鑑』 1613)

14) 손병태, 위의 논문, 71쪽

15) 손병태, 위의 논문, 38쪽

16) 손병태, 위의 논문, 57쪽

17) 손병태, 위의 논문, 51쪽

③ 초롱담 (『物譜』 1802)

④ 관음풀, 과남풀 (『物名考』 1820)

觀音草는 ‘관음풀’로 解讀되며, ‘과남풀’은 ‘관음풀’의 음이 訛傳된 것으로 보인다¹⁸⁾. ‘과남풀’의 경우 『東醫寶鑑』 표기와 유사하나 원순모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보다 이전 시기의 표기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2.2 芳草類

1) 蛇床子 : 비암도랏씨

① 蛇床菜子, 蛇音置良只 (『鄉藥救急方』 1251)

② 蛇都羅叱, 蛇音置良只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③ 蛇道乙羅叱, 비암도랏 (『村家救急方』 1571)

④ 사상자 (『診解胎産集要』 1608)

⑤ 비암도랏씨 (『東醫寶鑑』 1613)

⑥ 쥐손풀 (『廣濟秘笈』 1790)

蛇床菜子は ‘사상느물씨’로, 蛇音置良只는 ‘비암두라기’로, 蛇都羅叱는 ‘비암도랏’으로 각각 解讀된다¹⁹⁾. ‘씨’가 ‘씨’보다 古形이므로 ‘비암도랏씨’는 『東醫寶鑑』의 ‘비암도랏씨’보다 이후 시대의 표기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白芷 : 구리대불휘

① 仇里竹根 (『鄉藥集成方』 1433, 『鄉藥採取月令』 1431)

② 仇里大根 (『村家救急方』 1538)

③ 구리대 (『四聲通解』 1517)

④ 빅지 (『診解痘瘡集要』 1608)

⑤ 구리대불휘 (『東醫寶鑑』 1613)

仇里竹根은 ‘구리대불휘’로 解讀된다²⁰⁾. 『本草精華』와 가장 유사한 표현은 『東醫寶鑑』에서 볼 수 있다²¹⁾.

3) 香薷 : 노아기

① 奴也只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② 노아기 (『救急簡易方診解』 1489)

③ 뇌야기 (『訓蒙字會』 1527)

④ 奴也只, 노아기 (『村家救急方』 1571)

⑤ 노아기 (『東醫寶鑑』 1613)

⑥ 노야지 (『濟衆新編』 1799)

奴也只는 ‘노아기’로 解讀된다²²⁾. 『村家救急方』에서 ‘也’를 ‘야’가 아닌 ‘아’로 音讀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村家救急方』 향약명의 지역적 배경이 중앙이 아닌 지방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村家救急方』의 향약명과 동일한 표기가 『本草精華』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本草精華』 향약명의 지역적 배경 또한 중앙이 아닌 지방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예일 수 있다.

4) 薄荷 : 영싱이

① 芳荷 (『鄉藥救急方』 1251)

② 莢生 (『鄉藥集成方』 1433)

③ 영싱이 (『東醫寶鑑』 1613, 『濟衆新編』 1799, 『物名考』 1820, 『方藥合編』 1884)

芳荷는 ‘방하’로 解讀된다. 고유어 ‘방하’는 한어명의 音借인 ‘박하’와 공존하다가 ‘영싱’으로

18) 손병태, 위의 논문, 66쪽

19) 손병태, 위의 논문, 50쪽

20) 손병태, 위의 논문, 48쪽

21) ‘불휘’와 ‘불휘’의 비교만으로는 사용 시기의 先後를 논할 수 없다.

22) 손병태, 위의 논문, 117쪽

대체된다²³⁾. ‘영성이’가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2.2.3. 隰草類

1) 茵蔯 : 더위지기

- ① 加火老只 (『鄉藥救急方』 1251, 『鄉藥採取月令』 1431)
- ② 加外左只 (『鄉藥集成方』 1433)
- ③ 加外作只, 가외자기 (『村家救急方』 1538)
- ④ 더위자기 (『東醫寶鑑』 1613)
- ⑤ 더위지기 (『濟衆新編』 1799)

加火老只是 ‘더블노기’로, 加外左只是 ‘더외자기’로 解讀된다. ‘-左只’, ‘-作只’, ‘-자기’와 같이 일관되게 ‘-자기’의 형태를 보이다가 『濟衆新編』의 표기에서 ‘-지기’의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더위자기’는 최소한 『東醫寶鑑』의 표기보다 후대의 표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旋覆花 : 하국

- ① 夏菊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 ② 하국 (『東醫寶鑑』 1613)

‘하국’은 한자 명칭인 夏菊을 그대로 음독한 것이다. 모든 자료에서 ‘夏菊’ 또는 ‘하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漏蘆 : 절국대

- ① 伐曲大 (『鄉藥集成方』 1433)

- ② 絶穀大, 절곡대 (『村家救急方』 1571)
- ③ 절국대 (『東醫寶鑑』 1613)
- ④ 절국디 (『濟衆新編』 1799)
- ⑤ 법고치 (『物譜』 1802)

伐曲大는 ‘벌곡대’로 解讀된다. ‘절국대’는 ‘벌곡대’가 訛傳된 것으로 보인다²⁴⁾. ‘디’가 ‘대’로 변화할 수는 있으나 ‘대’가 ‘디’로 변화하기는 힘들므로 ‘디’가 ‘대’보다 古形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濟衆新編』에서 ‘절국디’로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東醫寶鑑』에서 ‘절국대’와 같은 표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래아(·)만으로는 시기의 先後를 가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²⁵⁾. 『本草精華』의 향약명과 동일한 표기가 『濟衆新編』에서 발견된다.

4) 牛蒡子 : 우영씨

- ① 惡實 (『鄉藥救急方』 1251)
- ② 苦牛蒡子 (『鄉藥採取月令』 1431)
- ③ 苦牛蒡實 (『鄉藥集成方』 1433)
- ④ 牛蒡子, 우영씨 (『村家救急方』 1571)
- ⑤ 쓴우영씨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⑥ 우왕 (『訓蒙字會』 1527)
- ⑦ 우영씨 (『東醫寶鑑』 1613)
- ⑧ 울왕 (『經驗方』 1630)
- ⑨ 영씨 (『廣濟秘笈』 1790)

苦牛蒡子는 ‘쓴우방씨’로 解讀된다²⁶⁾. ‘우영’은 ‘우왕’이 단모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씨’보다 ‘씨’가 후대의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영씨’는 『東醫寶鑑』의 ‘우영씨’보다 후대의 표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3) 손병태, 위의 논문, 113쪽

24) 손병태, 위의 논문, 35쪽

25) 동의보감이 후대에 重刊될 때, 初刊本の 향약명이 그대로 기재되지 않고 重刊 당시에 쓰였던 향약명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절국대’와 ‘절국디’에서 보이는 혼란상은 쉽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요망된다.

26) 손병태, 위의 논문, 61쪽

5) 天名精 : 여외오똥

- ① 狐矣尿 (『鄉藥救急方』 1251,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 ② 狐矣尿, 여외오똥 (『村家救急方』 1571)
 - ③ 여외오똥풀 (『救急簡易方諺解』 1489)
 - ④ 여외오똥 (『東醫寶鑑』 1613, 『濟衆新編』 1799)
- 狐矣尿은 '여외오똥'으로 解讀된다²⁷⁾. '여외오똥'은 '여외+ㅣ+오똥'으로 분리할 수 있다. '오똥'은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표기이다. 모음조화가 파괴되었고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 점으로 보아 '오똥'보다는 후대의 표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구개음이 사용된 '오똥'에서 '오똥'으로 변화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여우를 뜻하는 단어는 '여스' 여오 > 여우'의 변천을 보인다. 『本草精華』의 '여오'는 이들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또한 모음조화가 파괴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本草精華』의 '여외오똥'이란 향약명은 당대의 중앙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6) 豨薺 : 진득찰

- ① 蟾矣衿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 ② 두텁의니블 (『四聲通解』 1517)
 - ③ 진득찰 (『東醫寶鑑』 1613)
- 蟾矣衿은 '두텁의니블'로 解讀된다²⁸⁾. 豨薺의 향약명은 16세기까지는 '두텁의니블' 계열의 단어가 사용되다가 17세기 들어서 '진득찰' 계열로

대체된 듯하다. 『本草精華』의 '진득찰' 『東醫寶鑑』의 '진득찰'보다 이후의 표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7) 牛膝 : 쇠무릅디기

- ① 牛膝草 (『鄉藥救急方』 1251)
 - ② 牛無樓邑 (『鄉藥集成方』 1433)
 - ③ 牛無邑, 쇠무릅 (『村家救急方』 1571)
 - ④ 쇠무릅불휘 (『救急簡易方諺解』 1489)
 - ⑤ 우슬 (『諺解胎産集要』 1608)
 - ⑥ 쇠무릅디기 (『東醫寶鑑』 1613)
 - ⑦ 쇠무릅지기 (『山林經濟』 1718)
- 牛膝草는 '쇼무릅풀'로, 牛無樓邑은 '쇼무릅'으로 解讀된다²⁹⁾. 『本草精華』와 동일한 향약명 표기를 『東醫寶鑑』에서 볼 수 있다.

8) 紫菀 : 텅알

- ① 迨加乙, 地加乙³⁰⁾ (『鄉藥救急方』 1251)
 - ② 吐伊遏 (『鄉藥採取月令』 1431)
 - ③ 迨伊遏 (『村家救急方』 1538)
 - ④ 텅알³¹⁾ (『東醫寶鑑』 1613, 『方藥合編』 1884)
- 迨加乙은 '티갈'로 解讀된다³²⁾. 『本草精華』의 향약명과 동일한 표기를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에서 볼 수 있다.

9) 龍葵 : 가마중이

- ① 加尔曹而 (『鄉藥採取月令』 1431)
- ② 가마조시 (『救急簡易方諺解』 1489)

27) 손병태, 위의 논문, 85쪽

28) 손병태, 위의 논문, 90쪽

29) 손병태, 위의 논문, 67쪽

30) 신영일, 「鄉藥救急方に 對한 研究 (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279쪽

31)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43기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전산화한 원문에는 '텅달'로 誤記되어 있다.

32) 김종학, 「鄉藥文獻에 나타난 藥材名語彙 研究」, 54쪽

③ 가미중이 (『東醫寶鑑』 1613, 『方藥合編』 1884) 龍葵는 『鄉藥救急方』, 『鄉藥集成方』 등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本草精華』의 향약명과 동일한 표기를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에서 볼 수 있다.

10) 地膚子 : 디박리여름

- ① 唐楯伊, 唐楯 (『鄉藥救急方』 1251)
- ② 唐楯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 ③ 땃박릿씨 (『救急簡易方諺解』 1489)
- ④ 대박리여름 (『東醫寶鑑』 1613)
- ⑤ 땃쓰리 (『物名考』 1820)
- ⑥ 디박리씨 (『方藥合編』 1884)

唐楯伊는 ‘대박리’로 解讀된다³³⁾. 『本草精華』와 『東醫寶鑑』의 표기가 가장 유사하나 『本草精華』의 향약명에는 ‘대’가 아닌 ‘디’가 쓰인 점에서 차이가 난다.

11) 王不留行 : 당고시

- ① 長鼓草 (『鄉藥集成方』 1433)
- ② 당고재 (『東醫寶鑑』 1613)
- ③ 당고새 (『經驗方』 1630)
- ④ 당고시 (『方藥合編』 1884)

長鼓草는 ‘당고새’로 解讀되며, ‘당고재’는 ‘당고재 > 장고채 > 장구채’의 변화를 보인다³⁴⁾. 『本草精華』의 향약명과 『方藥合編』의 향약명이 동일하다.

12) 車前子 : 길경이씨

- ① 吉刑菜實, 大伊古尖 (『鄉藥救急方』 1251)

- ② 布伊作只 (『鄉藥集成方』 1433)
- ③ 뵤똥이 (『救急簡易方諺解』 1489)
- ④ 길경이씨, 뵤똥이씨 (『東醫寶鑑』 1613)
- ⑤ 길경이 (『物譜』 1802, 『物名考』 1820)

吉刑菜實은 ‘길형나뭇씨’로, 布伊作只는 ‘뵤똥이’로 解讀된다³⁵⁾. 『本草精華』 향약명인 ‘길경이씨’는 『東醫寶鑑』의 ‘길경이씨’와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씨’가 ‘뵤’보다 古形이므로 『東醫寶鑑』의 향약명이 시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 連翹 : 어어리나모여름

- ① 어어리나모여름 (『東醫寶鑑』 1613)
- ② 이어리나모여름 (『方藥合編』 1884)

連翹는 『鄉藥救急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 등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本草精華』의 ‘어어리’는 『東醫寶鑑』의 ‘어어리’에 비해 아직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보다 古形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14) 虎杖根 : 감뎃불휘

- ① 紺著 (『鄉藥集成方』 1433)
- ② 甘除根, 감뎃쌀히 (『村家救急方』 1538)
- ③ 감뎃불휘 (『東醫寶鑑』 1613)
- ④ 감젓대 (『物名考』 1820)

紺著는 ‘감뎃’로, 甘除根은 ‘감뎃불휘’로 解讀된다³⁶⁾. 『本草精華』와 동일한 표기를 『東醫寶鑑』에서 볼 수 있다.

15) 白茯苓 : 납거시

- ① 古冬非居參 (『鄉藥救急方』 1251)

33) 손병태, 위의 논문, 73쪽
 34) 손병태, 위의 논문, 65쪽
 35) 손병태, 위의 논문, 75쪽
 36) 손병태, 위의 논문, 100쪽

- ②古今非居■³⁷⁾ (『鄉藥採取月令』 1431)
- ③지리조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④臘居塞, 납가시 (『村家救急方』 1538)
- ⑤납거시³⁸⁾ (『東醫寶鑑』 1613)
- ⑥납가시 (『濟衆新編』 1799)
- ⑦납가시 (『物名考』 1820)
- ⑧시마름 (『物譜』 1802)
- ⑨납가시 (『方藥合編』 1884)

古冬非居參은 ‘고돌비거슴’으로 解讀된다³⁹⁾. 古冬非居參을 참조한다면 古今非居■에서 ‘今’은 ‘冬’의 誤寫일 수 있고 ■ 부분은 ‘參’이 옳을 것이다. 『本草綱目啓蒙』에서 『鄉藥採取月令』을 인용한 부분에서는 ■ 부분이 ‘塞’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居塞’는 ‘가시(刺)’에 대응되며, 古冬非居參의 ‘參’은 誤刻일 가능성이 발생한다⁴⁰⁾. 그러나 ‘參’이 ‘塞’에 대응되므로 ‘參’을 訓讀하여 ‘居參’을 ‘거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향약명은 ‘납거시> 납가시> 납가새> 납가새’의 변천을 보인다⁴¹⁾. ‘납거시’와 같은 초기 형태의 표기가 『村家救急方』보다 후대 문헌인 『東醫寶鑑』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本草精華』에도 『東醫寶鑑』과 동일한 표기인 ‘납거시’로 기재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白蒺藜의 향약명은 각 문헌마다 다른 표기가 나타나므로 『本草精華』와 『東醫寶鑑』에서 동일한 표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 두 문헌에 기재된 향약명간 언어적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암시할 수 있다.

2.2.4. 毒草類

1) 商陸 : 자리공불휘

- ①者里宮根, 章柳根 (『鄉藥救急方』 1251)
- ②這里居, 文章柳 (『鄉藥採取月令』 1431)
- ③這里君 (『鄉藥集成方』 1433)
- ④자리군 (『四聲通解』 1517)
- ⑤者里芎 (『村家救急方』 1538)
- ⑥자리공불휘 (『東醫寶鑑』 1613)
- ⑦자리공불회 (『山林經濟』 1718)
- ⑧자리공불휘 (『濟衆新編』 1799)
- ⑨자리광이 (『物譜』 1802)
- ⑩자리공불휘 (『方藥合編』 1884)

者里宮은 ‘자리궁’으로, 這里居는 ‘자리거’로, 這里君은 ‘자리군’으로 解讀된다. 이들은 모두 漢語名 商陸과 그 이명들에서 訛傳된 것이라 짐작된다. 這里居의 ‘居’는 ‘君’의 誤字일 것이다⁴²⁾. 『本草精華』와 동일한 표기는 여타 어떤 문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자리공’이라는 표현은 『東醫寶鑑』 이후 여러 문헌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狼毒 : 오독또기

- ①오독또기 (『東醫寶鑑』 1613, 『方藥合編』 1884)
- 狼毒의 향약명은 『鄉藥救急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 등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에서는 모두 ‘오독또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本草精華』에서는 ‘오독또기’로 기재되어 있다.

3) 大戟 : 버들웃

- ①楊等柴根 (『鄉藥救急方』 1251)

37) 원본의 훼손이 심하여 判讀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처리했다.

38) 初刊本에는 ‘납거시’로, 完營重刊本에는 ‘납가시’로 되어 있다.

39) 김종학, 『鄉藥文獻에 나타난 藥材名語彙 研究』, 56쪽

40) 조성오, 『『鄉藥採取月令』의 借字表記體系 研究』, 53쪽

41) 이은규, 『『鄉藥救急方』의 國語學的 研究』, 136쪽

42) 손병태, 위의 논문, 52쪽

- ② 柳漆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村家救急方』 1538)
- ③ 버들웃 (『東醫寶鑑』 1613)
- ④ 澤漆根 (『山林經濟』 1718)
- ⑤ 버들웃 (『濟衆新編』 1799)
- ⑥ 버들웃 (『方藥合編』 1884)

楊等柒根은 ‘버들웃불휘’로, 柳漆은 ‘버들웃’으로 解讀된다⁴³⁾. 『東醫寶鑑』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동일하게 ‘버들웃’이라고 기재했다.

4) 常山 : 조팝나무불휘

- ① 조팝나뭇불휘 (『東醫寶鑑』 1613)
- ② 조팝나모불휘 (『方藥合編』 1884)

常山은 『鄉藥救急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 등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나무는 ‘나모> 남우> 나무’의 변천을 보인다. ‘남우’는 1635년 간행된 『火砲式診解』에 등장하는 표기이다⁴⁴⁾. 따라서 ‘남우’보다 후대의 표기인 ‘나무’가 사용된 『本草精華』의 ‘조팝나무불휘’는 최소한 1635년보다는 더 후대의 표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藜蘆 : 박새

- ① 箔草 (『鄉藥救急方』 1251, 『村家救急方』 1538)
- ② 朴鳥伊 (『鄉藥採取月令』 1431)
- ③ 朴沙伊 (『牛馬洋猪染疫治療方』 1541)
- ④ 박새 (『東醫寶鑑』 1613, 『山林經濟』 1718)
- ⑤ 박시 (『方藥合編』 1884)

箔草, 朴鳥伊, 朴沙伊는 모두 ‘박새’로 解讀된다⁴⁵⁾. 『本草精華』의 향약명과 동일한 표기를 『方藥合編』에서 볼 수 있다.

6) 草烏 : 바긋

- ① 바긋 (『東醫寶鑑』 1613, 『方藥合編』 1884)
- 草烏의 향약명은 『鄉藥救急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 등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바긋’은 『本草精華』, 『東醫寶鑑』, 『方藥合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7) 白附子 : 흰바긋

- ① 白波串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 ② 白波串, 바긋불휘 (『村家救急方』 1571)
 - ③ 흰바긋불휘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④ 흰바긋 (『東醫寶鑑』 1613, 『方藥合編』 1884)
- 白波串은 ‘흰바긋’으로 解讀된다. ‘흰바긋’은 ‘흰바긋> 흰바긋> 흰바긋> 흰바긋’의 변천을 보인다⁴⁶⁾. 『本草精華』와 동일한 표기가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에서 사용되었다.

8) 射干 : 범부치

- ① 虎矣扇根 (『鄉藥救急方』 1251,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 ② 범부채 (『東醫寶鑑』 1613)
- ③ 범부채 (『濟衆新編』 1799, 『物名考』 1820, 『方藥合編』 1884)

虎矣扇根은 ‘범의부채불휘’로 解讀된다⁴⁷⁾. 『本草精華』에서만 ‘범부치’가 발견된다. ‘범부치’는 ‘범부채’보다 ‘범부채’ 쪽에 더 가까운 표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43) 손병태, 위의 논문, 36쪽
 44) 김민수, 『우리말 語源辭典』, 175쪽
 45) 손병태, 위의 논문, 63쪽
 46) 손병태, 위의 논문, 47쪽
 47) 손병태, 위의 논문, 49쪽

2.2.5. 蔓草類

1) 兔絲子 : 새삼씨

- ① 鳥伊麻 (『鄉藥救急方』 1251)
- ② 鳥麻 (『鄉藥集成方』 1433)
- ③ 鳥麻, 새삼 (『村家救急方』 1571)
- ④ 새삼씨 (『東醫寶鑑』 1613, 『山林經濟』 1718)
- ⑤ 시삼 (『物譜』 1802)
- ⑥ 쇠삼씨 (『方藥合編』 1884)

鳥伊麻, 鳥麻는 모두 '새삼'으로 解讀된다⁴⁸⁾. 『本草精華』의 '새삼씨'는 『東醫寶鑑』의 '새삼씨'와 유사하다. 그러나 '씨'는 '씨'보다 더 古形이므로 『本草精華』의 향약명이 『東醫寶鑑』보다 후대의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2) 覆盆子 : 나모딸기

- ① 末應德達 (『鄉藥採取月令』 1431)
- ② 末應德達汝注乙 (『鄉藥集成方』 1433)
- ③ 멩덕딸기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④ 末應德達只, 멩덕딸기 (『村家救急方』 1571)
- ⑤ 나모딸기, 멩덕딸기 (『東醫寶鑑』 1613)
- ⑥ 나모딸기 (『經驗方』 1630)
- ⑦ 나모딸기 (『濟衆新編』 1799)
- ⑧ 곰딸기, 멩더리딸기 (『物名考』 1820)

末應德達은 '멩덕달로, 末應德達汝注乙은 '멩덕달너출'로, 末應德只는 '멩덕딸기'로 解讀된다.⁴⁹⁾ 『本草精華』의 향약명과 『東醫寶鑑』의 향약명이 같다.

3) 何首烏 : 江原道 온조롱 黃海道 시박 불휘

① 江原道名 온조롱, 黃海道名 새박불휘 (『東醫寶鑑』 1613)

② 江原道 온조롱, 黃海 시박불휘 (『方藥合編』 1884)

何首烏의 향약명은 『鄉藥救急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 등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의 방언을 각각 제시해주는 형식이 『本草精華』, 『東醫寶鑑』, 『方藥合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本草精華』, 『東醫寶鑑』, 『方藥合編』의 세 문헌이 서로를 인용했거나 혹은 동일한 자료로부터 본 내용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 세 문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本草精華』의 '온조롱'은 단모음이 사용된 『方藥合編』의 '온조롱'보다 이전 시기의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4) 威靈仙 술위늑무불휘

- ① 車矣菜, 狗尾草, 能消 (『鄉藥救急方』 1251)
 - ② 車矣菜 (『鄉藥採取月令』 1431)
 - ③ 能消 (『鄉藥集成方』 1433)
 - ④ 술위늑물불휘⁵⁰⁾ (『東醫寶鑑』 1613)
 - ⑤ 술위늑물불휘 (『山林經濟』 1718)
 - ⑥ 어사리 (『物名考』 1820)
 - ⑦ 어알이불이 (『廣濟秘笈』 1790)
- 車矣菜는 '술위나말'로 解讀된다.⁵¹⁾

원순모음화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本草精華』의 '술위늑무불휘'는 『山林經濟』의 '술위늑물불휘'보다 후대의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즉 '술위늑물불휘' > 술위늑물불휘 > 술위늑물불휘 > 술위늑물불휘

48) 손병태, 위의 논문, 81쪽

49) 손병태, 위의 논문, 102쪽

50) 初刊本에는 '술위늑물불휘'로, 完營重刊本에는 '술위늑물불휘'로 기재되어 있다.

51) 손병태, 위의 논문, 68쪽

무불휘'와 같은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다. 혹은 『本草精華』의 향약명이 중앙어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茜根 곡또손이

- ① 古邑豆訟 (『鄉藥採取月令』 1431)
- ② 高邑豆訟 (『鄉藥集成方』 1433)
- ③ 곱도사 古邑 불휘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④ 古邑道松 (『村家救急方』 1538)
- ⑤ 곡도송 (『東醫寶鑑』 1613)
- ⑥ 곡도송 (『譯語類解』 1690)
- ⑦ 곡도손 (『方藥合編』 1884)

茜根의 鄉名은 '곱두송, 곱도송, 곡도송, 곡도손, 곡도손이, 곱두선이, 곱두서니' 등의 語形變遷을 보여준다⁵²). 『本草精華』의 '곡또손이'는 단모음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譯語類解』의 '곡도송'보다는 이전 시기의 표기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문헌에서와는 달리 『本草精華』의 향약명에 만 접미사 '-이'가 붙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곡또손이'가 중앙어가 아닌 방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絡石 담장이

- ① 담장이 (『訓蒙字會』 1527, 『東醫寶鑑』 1613)
- 絡石의 향약명은 『鄉藥救急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 『方藥合編』 등의 문헌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本草精華』와 동일한 향약명이 『訓蒙字會』와 『東醫寶鑑』에 등장한다.

7) 忍冬 겨우스리너출

- ① 金銀花草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 ② 金銀花 (『村家救急方』 1571)
 - ③ 겨우사리너출 (『東醫寶鑑』 1613)
 - ④ 겨우사리플 (『廣濟秘笈』 1790)
- '너출'은 '너출 > 너출 > 너출'의 변천을 보인다. '너출'만으로 판단할 때 『本草精華』의 향약명은 『東醫寶鑑』보다 후대의 표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2.6. 水草類

1) 澤瀉 쇠귀나물불휘

- ① 牛耳菜 (『鄉藥救急方』 1251, 『鄉藥採取月令』 1431, 『鄉藥集成方』 1433)
- ② 쇠귀늑불휘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③ 牛耳菜, 쇠귀늑물 (『村家救急方』 1571)
- ④ 퉁샤 (『診解胎産集要』 1608)
- ⑤ 쇠귀늑물불휘 (『東醫寶鑑』 1613)
- ⑥ 쇠귀나물불휘 (『濟衆新編』 1799)
- ⑦ 쇠귀늑물불휘 (『方藥合編』 1884)

牛耳菜는 '쇼귀늑물' 혹은 '쇼귀늑물'로 解讀된다⁵³). 『本草精華』의 향약명은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의 중간 단계의 형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2) 海藻 말

- ① 말 (『東醫寶鑑』 1613, 『方藥合編』 1884)
- 海藻의 향약명은 『鄉藥救急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 등의 문헌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本草精華』와 『東醫寶鑑』에서 동일한 향약명이 사용되었다.

52) 손병태, 위의 논문, 76쪽

53) 손병태, 위의 논문, 81쪽

3) 海帶 다스마

- ① 多士摩藿 (『鄉藥採取月令』 1431)
- ② 多士麻 (『鄉藥集成方』 1433)
- ③ 다스마머옥 (『救急簡易方診解』 1489)
- ④ 多士麻, 다스마 (『村家救急方』 1571)
- ⑤ 다스마 (『東醫寶鑑』 1613, 『譯語類解』 1690)

多士麻는 ‘다스마’로 解讀된다⁵⁴⁾. ‘다스마’가 『救急簡易方診解』 이후 꾸준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7. 石草類

『本草精華』 石草類에는 鄉藥名이 기록된 약재가 없으므로 다른 의서에 鄉藥名이 기록된 약재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비교하지 않는다.

2.2.8. 苔類

1) 卷柏 부터손

- ① 부터손 (『東醫寶鑑』 1613, 『方藥合編』 1884)

卷柏의 향약명은 『鄉藥救急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 등의 문헌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本草精華』와 『東醫寶鑑』의 표기가 동일하다.

2.3. 考察

이상에서 『本草精華』 草部에 수록된 약재를 중심으로 鄉藥名을 비교해 보았다. 그 중 『救急簡易方診解』에는 총 23개 항목의 향약명이 있으며 그 중 『本草精華』와 동일한 향약명을 사용한 경우는 1회였다. 『村家救急方』에는 총 28개 항목의 향약명이 있으며 그 중 『本草精華』와 동일한 향약명을 사용한 경우는 2회였다. 『東醫寶鑑』에는 총 53개 항목의 향약명이 있으며 그 중 『本草精華』와 동일한 향약명을 사용한 경우는 22회였다. 『濟衆新編』에는 총 15개 항목의 향약명이 있으며 그 중 『本草精華』와 동일한 향약명을 사용한 경우는 4회였다. 『方藥合編』에는 총 16개 항목의 향약명이 있으며 그 중 『本草精華』와 동일한 향약명을 사용한 경우는 12회였다. 다른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고 『本草精華』에서만 볼 수 있는 향약명은 총 24개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書名 (간행년도)	『本草精華』와 동일한 향약명 표기 (동일표기 수/총 인용 수)
『救急簡易方診解』 (1489)	도랏 (1/23)
『村家救急方』 (1571)	노아기, 다스마 (2/28)
『東醫寶鑑』 (1613)	더덕, 도랏, 아기풀불휘, 강호리, 띄덜가릿불휘, 가치무릇, 영성이, 하국, 쇠무릅디기, 텅알, 가마종이, 감뎃불휘, 남거시, 버들웃, 바곳, 흰바곳, 나모팔기, 온쥬롱, 담장이, 뭍, 다스마, 부터손 (22/53)
『濟衆新編』 (1799)	영성이, 더위지기, 절국디, 버들웃 (4/15)
『方藥合編』 (1884)	뫓미나리, 영성이, 텅알, 가마종이, 당고시, 버들웃, 박시, 바곳, 흰바곳, 시박불휘, 뭍, 부터손 (12/16)
『本草精華』에만 쓰인 향약명	돈너슴불휘, 뚝뎃불휘, 삼두불휘, 디암풀, 속서근풀, 양치불휘, 과남풀, 비암도랏씨, 구리뎃불휘, 우영씨, 여외오뎃, 진득찰, 반리여름, 길경이씨, 어여리나모여름, 자리공불휘, 오독또기, 조팍나무불휘, 범부치, 새삼씨, 술위느무불휘, 곡또손이, 겨우스리너출, 쇠귀나뭍불휘 (24)

54) 손병태, 위의 논문, 86쪽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本草精華』 草部에 수록된 향약명 표기는 『本草精華』에만 등장하는 표기가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東醫寶鑑』과 동일한 표기가 약 1/3을 차지한다. 『救急簡易方諺解』와 『村家救急方』의 경우는 『本草精華』와 동일한 본초 항목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재들에 대하여 다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本草精華』 향약명에 대하여 단순히 숫자만을 헤아린다면 22개 약물에 대해 동일한 향약명을 표기하고 있는 『東醫寶鑑』과 관련성이 많은데, 전체 약재수와 비교한 동일한 표기 비율을 고려한다면 『方藥合編』과 비교했을 때 그 유사도가 가장 높다. 달리 말한다면 『本草精華』에 사용된 향약명을 통해 『方藥合編』이 『東醫寶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도 한데, 이는 『方藥合編』과 『本草精華』에서 동일하게 기재된 표기 총 12개 중 영성이, 텅알, 가마종이, 버들웃, 바곳, 흰바곳, 뭍, 부터손 등 총 8개가 『東醫寶鑑』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이 가지는 연관성 사이에 『本草精華』를 넣어 고려할 수 있으며, 『本草精華』의 향약명은 다른醫書들에 비해 『東醫寶鑑』의 향약명과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本草精華』 향약명의 언어적 배경이 『東醫寶鑑』의 언어적 배경과 연관성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미루어 짐작해 볼 때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이 간행된 사이 언제 즈음에 『本草精華』가 간행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은 『本草精華』에만 등장하는 향약명 표기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4개 항목의 향약명이 『本草精華』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비록 『本草精華』 향약명이 『東醫寶鑑』의 향약명과 깊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東醫寶鑑』으로부터 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즉,

『東醫寶鑑』의 영향으로 인해 향약명에 대한 언어적 배경이 『本草精華』에서 많이 공유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本草精華』 향약명만 가지는 고유한 언어적 배경도 존재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本草精華』 향약명은 어느 한 시대를 대표하는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本草精華』에는 아기풀불휘, 씨덜가릿불휘, 감뎃불휘, 시박불휘, 독뎃불휘, 삼뎃불휘, 스양치불휘, 쇠귀나물불휘 등과 같은 ‘불휘’, 든너삼불휘, 술위늑무불휘 등과 같은 ‘불휘’, 구리뎃불휘, 자리공불휘 등과 같은 ‘불희’, 조팝나무불휘와 같은 ‘불희’ 등 根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불휘’, ‘불휘’, ‘불희’ 네 가지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또한 나모빨기, 어여리나모여름 등과 같은 ‘나모’, 조팝나무불휘의 ‘나무’, 술위늑무불휘의 ‘늑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모’, ‘늑무’, ‘나무’ 세 가지 표기도 혼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本草精華』에서는 한 가지에 대해 서로 다른 표기법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東醫寶鑑』에서는 모두 든너삼불휘, 독뎃불휘, 삼뎃불휘, 아기풀불휘, 사양치불휘 등 모두 ‘불휘’로 표기가 통일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단순히 표기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本草精華』에는 ‘여외오뎃’과 같이 방언일 가능성이 높은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東醫寶鑑』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本草精華』의 특징 때문에 鄉藥名에 대한 표기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결여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東醫寶鑑』과 달리 『本草精華』의 향약명 표기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本草精華』가 『東醫寶鑑』을 참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먼저 간행된 서적

을 참고하였다면 뒤에 간행된 서적에서는 내용을 바꾸어 인용하고자 한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東醫寶鑑』에서는 ‘불휘’로 표기를 통일하였으나 『本草精華』에서는 ‘불휘’, ‘불휘’, ‘불회’, ‘불회’ 표기가 혼용된 경우를 보더라도 『本草精華』의 저자가 『東醫寶鑑』을 참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서로 다른 서적에서 모두 동일한 형식을 취하는 향약명 설명이 나타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何首烏 항목을 살펴보면 『東醫寶鑑』, 『本草精華』, 『方藥合編』 세 곳 모두 江原道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黃海道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내용을 우연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만약 『本草精華』의 저자가 『東醫寶鑑』을 참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일한 형식의 내용이 양쪽에 기재되었다는 것은, 이들 문헌이 공통적으로 인용한 제3의 문헌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대두시킨다. 즉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제3의 문헌에 기재된 何首烏 항목의 내용이 『東醫寶鑑』과 『本草精華』에 각각 따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東醫寶鑑』, 『本草精華』, 『方藥合編』에 기재된 何首烏 항목의 향약명은 같은 형식이기는 하지만 표기에 있어서는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들 문헌이 인용서적을 참조하기는 하되 당대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표기를 변형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羌活, 連翹, 狼毒, 常山, 草烏, 海藻, 卷柏에 해당하는 향약명은 오로지 『東醫寶鑑』, 『本草精華』, 『方藥合編』에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 볼 때 이들 『東醫寶鑑』, 『本草精華』, 『方藥合編』 세 문헌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요망된다.

『本草精華』가 저술된 연대에 대해서는 향약명만으로 정확한 추정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本草精華』의 향약명 표기가 『東醫寶鑑』 표기와 가장 유사하다는 점, ‘독덧불휘’, ‘삼뉘불휘’, ‘씨덜가릿불휘’, ‘쇼무릅디기’, ‘여외오똥’, ‘감뎃불휘’ 등의 예에서와 같이 아직 구개음화가 진행되지 않은 향약명이 다수 기재된 점, ‘삿들흡’, ‘강흐리’에서와 같이 아직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점 등의 사실들로 미루어 짐작할 때, 『本草精華』의 향약명은 대략 17세기 무렵의 표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3.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本草精華』 草部 약재들을 중심으로 몇몇 의서들에 나타난 鄉藥名을 비교해 볼 때 『本草精華』의 향약명은 『東醫寶鑑』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 2) 『本草精華』의 鄉藥名 표기 체계는 『東醫寶鑑』에 비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표기를 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 3) 『本草精華』가 『東醫寶鑑』의 향약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本草精華』의 저자는 『東醫寶鑑』을 직접적으로 참조하거나 인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4) 『本草精華』 및 『東醫寶鑑』, 『方藥合編』 세 문헌이 공통적으로 참조, 인용한 제삼의 문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 5) 『本草精華』 草部の 鄉藥名은 약 17세기 무렵의 표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색어 : 본초정화, 동의보감, 향약명, 본초, 한

국의서, 중세국어

참 고 문 헌

4.1. 資料

- 1) 『本草精華』, 年代未詳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醫藥學篇 1, 1988)
- 2) 『鄉藥救急方』 重刊本, 1417 (1251年 初刊)
- 3) 『鄉藥採取月令』 筆寫本, 1431
- 4) 『鄉藥集成方』 重刊本, 1633 (1433年 初刊)
- 5) 『救急簡易方診解』, 1489
- 6) 『村家救急方』 初刊本, 1538
- 7) 『村家救急方』 重刊本, 1571
- 8) 『四聲通解』, 1517
- 9) 『訓蒙字會』, 1527
- 10) 『牛馬洋猪染疫病治療方』 重刊本, 1636 (1541年 初刊)
- 11) 『診解痘瘡集要』, 1608
- 12) 『診解胎産集要』, 1608
- 13) 『東醫寶鑑』, 1613
- 14) 『山林經濟』, 1718
- 15) 『廣濟秘笈』, 1790
- 16) 『濟衆新編』, 1799

17) 『物名考』, 1820

18) 『物譜』, 1802

19) 『方藥合編』, 1884

4.2. 論著

- 1) 김민수,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 2) 김중학, 「鄉藥文獻에 나타난 藥材名語彙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논문, 1988
- 3) 서정범, 『國語語源辭典』, 보고사, 2000
- 4) 손병태, 「鄉藥 藥材名의 國語學的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논문, 1996
- 5) 신영일, 「鄉藥救急方에 對한 研究 (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 논문, 1994
- 6) 이은규, 「『鄉藥救急方』의 國語學的 研究」,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논문, 1993
- 7) 조성오, 「『鄉藥採取月令』의 借字表記體系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논문, 1982